추석 가정예배

묵	도		다 같 이
찬	송	325장「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같 이
신앙고	.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기	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	-독	출애굽기 20장 8-11절	가족 중에서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 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 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나눔			설교자
축복과 1	비전나	눔	다 같 이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의 미래의 비전을 가족들에게 말하고 부모님(집안어른)들은 말씀으로 축복을 기원해 줍니다.)	
찬	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같 이
마	침 …	주기도문	다 같 이

예배 인도 하실 때 인도는 가장 또는 가족 중에 연장자가, 기도는 가족 중에서 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주세요. 말씀은 인도자가 설교문을 읽으셔도 되고 QR코드를 스캔하여 담임목사님 동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추석 기도제목

- ① 자녀들을 위해: 취업과 학업, 배우자 등을 위해
- ② 가정을 위해: 온 가족의 영혼구원과 그 삶에 풍성한 열매 맺기를 위해
- ③ 나라를 위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기 위해

거룩한 쉼이 있는 가정 (출20:8-11)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절기와 같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절기의 기본인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창조 이야기를 보면, '보기에 좋았더라'가 반복되지만, 한 가지 '좋지 못하니'가 있으니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입니다. 인간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는데, 이것은 일 만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써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가정: 이 때에 만들어진 것이 가정, (2) 쉼: 일의 반대말이 쉼이니까...

그러므로 '가정은 쉼의 자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가정에 그대로 적용할 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정은 '거룩한 쉼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어떠해야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쉼'이 있을 수 있는가?

1. 영적인 분위기가 평강(샬롬)이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도 영적인 분위기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평강(샬롬)이 그 가정을 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평강이어야 '거룩한 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하는데, 가족들사이에 갈등 때문에 아주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교만과 상처를 회개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바뀐 것이 가정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집에서 쉼을 누리게 되니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가슴이설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정 가운데 거룩한 쉼이 있으려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샬롬, 평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본 모습이고, 바로 첫 번 안식일 가운데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2. 충전과 회복을 위한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전동 칫솔은 그냥 꽂아 놓기만 해도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전자파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으로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봅니다. 진짜 하나님의 가정은 충만한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해서, 가정 가운데 있기만 해도 전인적인 충전과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거룩한 쉼은 바로 이 충전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쉼은 그것으로 에너지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지치고 완전 방전된 채로 집에 왔어도, 하루 저녁 가족들과함께 있으면서 그냥 충전이 되고 아침에는 그야말로 충만해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거룩한 쉼이 있는 가정'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하나 이기를 바랍니다.